

지속가능 자원순환 도시 만든다

전주시, 자원순환·청소·공원·녹지 분야 3대 목표·6대 핵심 추진

전주시는 21일 자원순환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자원순환·청소·공원·녹지 분야의 3대 목표와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안에는 '청소행정 혁신을 통한 깨끗한 도시공간 조성, 시민 친화적 공원·가로수 관리, 정원의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 추진'을 담고 있다.

여기에 6대 핵심과제로 '효율적 수거체계 마련, 쓰레기 배출 감량화, 안정적 자원순환체계 마련,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정원문화 확산'을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한다.

시는 청소행정 분야에서 생활폐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기존 성상별 수거방식에서 지역별 책임청소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1회용품 줄이기 유튜브 홍보채널 운영과 시민활동가 양성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다.

또 안정적 폐기물 처리 환경 조성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바이오가스 기반 융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에선 가을철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은행나무의 약취 저감을 위해 결실억제제 도입과 열매 적기 채취, 압나무 이식을 제시했다.

동시 일관성 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식재기준과 목표수형 관리 등의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가로수 관리정보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덕진공원을 전주시 대표관광지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덕진공원 호수의 수질개선 및 수위 확보를 위해 바닥퇴적물 준설 공

사 및 관광 개발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종합적인 조경계획 수립해 섬세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5월 개관하는 정원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전문가 양성 및 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또 제3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관광자원화도 꾀하고 '전주 지방정원 조성, 정원식물 지원센터 조성, 완산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사업' 등 시민의 삶이 정원이 되는 구상을 표출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청소, 공원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시 경관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책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지역발전 헌신 모범 시민 찾아요"

전주시민대상·모범시민상 후보자 3월 21일까지 추천 받아

전주시가 투철한 봉사정신을 실천해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전주시민을 찾고 있다.

오는 3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동안에 거쳐 '2023년도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전주시민대상'과 '모범시민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온 시민에게 수여되는 영광스런 상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시는 전주시민대상으로 '효행대상, 교육학술대상, 문화예술대상, 산업·기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체육

대상, 환경대상, 복지대상' 등 총 8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성실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 5명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발한다.

전주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전주시 소재 '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시의원, 구청장, 시 부시장, 동장,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239)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월 22일(단요일)로 예정된 '전주시민의 날 기

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963년 시작된 전주시민대상은 지난해까지 60여 년의 동안 총 31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앞으로 전주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된다.

여기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

임숙희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전주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이 꼭 추천돼 전주시민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철거 장비 본격 투입

전주시, 상반기 완료 목표

지난 40여 년간 전주시민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던 전주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 21일 종합경기장 철거 장비 진입로 확보를 위해 야구장 일부 철거공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철거공사 착공 후 인접 거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펜스와 비계 등 차폐시설을 설치했으며, 착공 신고 필증 교부까지 마친 상태다.

앞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계획에 따라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야구장을 철거한 뒤, 안전 펜스를 설치해 지역축제 등 행사공간으로 우선적인 활용 방안을 비추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야구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한국문화원형 콘서트 체



종합경기장 야구장 전경

럼·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 추진 계획을 여러번 밝혔고, 여기에 시는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시너지 효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주 경제의 성장과 대변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개발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전주의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조이락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농번기 앞두고 '들불' 화재 주의 당부

다가오는 농번기를 앞두고 전주덕진소방서는 논·밭 등 임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들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도내에서 126건의 '들불'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2명)가 발생했으며, 1억11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들불' 화재의 원인은 전체 126건 중



123건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의 내용으로는 쓰레기 소각(42건, 33.3%), 논·임야태우기(35

건, 27.8%), 담배꽂초(19건, 15.1%), 기타 부주의(14건, 11.1%), 불씨·불꽃 화원방치(10.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년간 전체 '들불' 화재의 70.6%(89건)가 2월에서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해빙기간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해빙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쓰레기 소각 등 들불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로 화재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임종은 기자

※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현황 : 총 17건 28명 (2. 21. 기준)

조지/유형별	조지별			유형별				
	승지	불승지중	수사중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조합임직원 선거권 동선가기	사전선거 운동	선거운동 방법위반
건	17	1	16	12	1		4	
명	28	1	27	23	1		4	

△단선사범 : 고발(9건, 52.9%) > 첩보(7건, 41.2%) > 고소(1건, 5.9%) 順, △유형별 : 금품향응 제공(12건, 70.6%) > 사전선거(4건, 23.5%) > 허위사실유포등(1건, 5.9%) 順

<주요사례>

유형	개요
사전선거	○00농협 조합장인 피고발인은 22. 11월경 現 조합장 000을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 6,5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 ※ 승지중결 <00사>
금품향응제공	○現 00농협 조합장인 피고발인은 22. 12월경 제주도 임원워크숍에 임원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원 상당 교통편의 제공, 식사 등 제공한 혐의 <00사>
금품향응제공	○00조합장 출마예정자 등은, 조합원들에게 냉동홍어 00상자를 기부한 혐의 <00사>
금품향응제공	○00신협조합장인 피고발인은 '19. 3.- 23. 1. 조합장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를 제공하면서 조합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한 혐의 <00사>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현황

전북경찰청,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전북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단속체제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며 전북경찰청은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인 3월 8일까지(14일간) 도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단속체제 구축했다.

특히 전북경찰청은 앞서 선거 50일 전인 1월 17일부터 수사전담반 118명 편성해, 첩보수집에 따른 단속 강화를

해왔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관련 하여 총 17건 28명을 단속(2월 21일 기준)했다.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1명을 송치하고, 27명은 입건조사 또는 수사중을 펼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엄정 단속할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